

김학영-박병중-송귀근 3파전 압축

고흥군수

내년 고흥군수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박병중 현 군수와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 안철수 신당 실행위원인 송귀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이 벌이는 3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 후보가 난립하진 않고 있지만 각기 다른 특성과 장점을 내세운 초반 기 싸움이 팽팽하다.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지세력 간 힘겨루기도 만만찮아 후보는 적지만 선거전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양읍과 고흥읍을 중심으로 지역 간 지지 후보가 나뉘는 양상이라서 의외의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정치 성향과 경력을 가진 후보가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신당의 뜻을 입고 선거에 참여한다는 점도 관련 포인트다. 후보자들의 경력도 화려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더욱 관심이 가는 지역이다.

후보자 경력 화려... 기사움 팽팽

지역간 지지후보 뚜렷 접전 예상

실행위원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김학영 전 서장의 안철수 신당 합류도 점쳐지고 있다. 김 전 서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 안 신당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청와대 등지에서 근무한 이색 경력에 있다. 단순히 경찰뿐 아니라 행정 경력도 탄탄해 지역의 신망이 두텁다.

7급 공무원으로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행정고시에 도전, 합격해 전남도청과 경찰청 등에서 근무했다. 김 전 서장은 지난 2010년 고흥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했지만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며 터를 닦아 왔다. 표심을 사로잡을 농·수·축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병중 군수는 나로호 발사 성공의 반사 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은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높아진 군민들의 자부심이 투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국립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우주과학관, 천문과학관, 우주발사선 광대 간섭 등 우주 관련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도 성과로 손꼽힌다. 폐석산을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거름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전액 민간 자본을 유치한 점 등도 눈에 띈다.

박 군수는 9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고흥청정식품단지의 정착,

■ 고흥군수 출마예정자

정당	무소속	민주당	안철수 신당
이름(나이에)	김학영(61)	박병중(60)	송귀근(57)
주요경력	· 공무원 교육원 감사 · 전·고흥경찰서장	· 고흥군수 · 전·고흥 축협조합장	· 정책 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 전·광주시 행정부시장

※ 후보는 가나다 순

도양일반산업단지, 특화농공단지, 산업형특화단지 등 기업입주 활성화 등 지역 경제 관련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송귀근 전 광주시행정부시장은 고흥부군수와 국가기록원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가로서의 이미지를 알리고 있다.

안철수 신당의 '내일'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표발을 다지고 있다. 중앙과 지방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했고, 고흥 출신 공무원 모임을

이끄는 등 인맥도 풍부하다.

또 고흥군의 각종 현안사업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그는 웰빙식품 산업 육성 및 특화작목 중심의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업 집중 육성, 고흥만 주변 관광지화, 나로우주센터·소록도 등과 연계되는 관광인프라 구축 등의 미래 전략을 짜고 있다.

/오광록·주각중기자 kroh@

■ 이슈&변수

여수와 근접 安風 얼마나 불지

고흥읍 표심이 캐스팅보트 역할

고흥군수 선거는 '남북대결'과 '안풍'이 가장 큰 변수다. 읍·면 단위로 지지하는 후보가 뚜렷한데, 공공롭게도 남부와 북부로 지지후보가 다르기 때문에 내년 군수 선거는 지역간 대결로 흐를 전망이다.

또 안철수 의원의 처가인 여수와 고흥의 밀접한 관계도 변수다. 여수 지역에 고흥 출신 시민이 많이 살고 있어 여수에서 안풍이 거세게 불면 고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권역이 고흥을 중심으로 남부지역과 순천·광주로 연결되는 동강~과역 중심의 북부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지켜봐야 한다. 과거 남부지역에서 주로 당선자가 나와 북부의 상실감이 강하고, 이에 따른 남부의 단결도 가속화되고 있다.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선은 안 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반면, 응집력이 높은 남부지역에서는 현 군수

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강세다.

고흥읍의 선택도 중요 포인트다. 그동안 불표를 주지 않고 고른 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고흥읍이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신당 구도로 흐르고 있어 '안풍의 실패'는 의외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변수다. 정통적으로 고흥에서 여수와 순천 등지로 진화하는 경우가 잦아 자연스레 여수와 순천에 일지리를 얻어 거주는 사람도 많다. 이에 따라 여수·순천에서 안풍이 불면 덩달아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 고흥이다. 여수·순천에 거주하는 자녀의 표심이 고흥의 부모 세대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서서히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고흥에서도 안철수 신당이 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오광록·주각중기자 kroh@kwangju.co.kr

후보 8명 난립... 민주 공천 누가 받나

보성군수

보성군수를 뽑는 내년 선거는 정종해 현 군수의 3선 도전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나서는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또 대부분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준비하고 있어 사실상 당내 다툼이 본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 군수를 비롯해 김형수 보성축산농협조합장, 김철우 전 보성군의회 의장, 박승주 순천경찰서장, 이웅부 전 서울시의회의장, 이탁우 전 남도정무정책 특별보좌관, 임명규 전 남도의회 의원, 하승환 전 보성군수 등 8명이 민주당 공천을 노리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현재 무소속 신분이지만 민주당 공천을 준비하며, 판세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또 일부 후보군은 아예 무소속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 신당의 출마도 예상되지만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워낙 탄탄한 지역이라서 현재까지 표면 위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김형수 보성축산농협조합장은 고향인 보성읍을 기반으로 세를 불리고 있다. 오랫동안 조합장을 지내며 쌓인 인맥이 풍부하고, 성공적인 경영

■ 보성군수 출마예정자

정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무소속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무소속
이름(나이에)	김병수(66)	김철우(49)	박승주(59)	이웅부(61)	이탁우(55)	임명규(56)	정종해(66)	하승환(62)
주요경력	· 보성경찰서 행정발전위원장 · 전·보성축협 조합장	· 보성군의회 의장	· 순천경찰서장 · 전·보성경찰서장	· 남부대 교수 · 전·서울시의회 의장	· 전남도 정무특보 · 전·전남도의회 의원	· 전남도의회 부의장 · 벌교농협 조합장	· 보성군수 · 전·기회예산처 기획담당관	· 변호사 · 전·보성군수

※ 후보는 가나다 순

일부 후보 무소속 선회 가능성

安 신당 후보 아직은 부상 안돼

을 통해 보성 축협을 전국 우수 축협으로 자리매김한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철우 전 보성군의회 의장도 4년 전 정 군수와 팽팽한 당내 경쟁을 펼친 여세를 몰아 재도전에 나섰다. 보성군의회 3선 의원을 역임한 김 전 의장은 고른 인맥 형성과 모교인 벌교 상고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박승주 순천경찰서장도 출마 준비

를 서두르고 있다. 보성을 '대한민국 귀농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출판기념회를 통해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웅부 전 서울시의회의장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전국시도운영위원장 협의장과 시도의장협회장 등을 역임한 이 전 의장은 풍부한 의회 경험을 토대로 입지를 넓혀

가고 있다.

지난 2010년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정 군수에게 패배했던 이탁우 특보는 그동안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며 내년 선거를 준비했다. 전남도 생활체육회장을 역임하며 인맥을 쌓았고, 도의원시절 농림수산위원장을 역임했던 경력 등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임명규 전남도의회 부의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보성농협조합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과 밀접한 활동을 해왔고, 도의회 경험 등을 토대로 잘 사는 보성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당내 경선이 여의치 않으면, 임 부의장은 도의원 선거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정종해 군수는 기획예산처 국장을 역임한 예산전문가임을 내세워 3선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08년에 예산 3000억원시대를 열었고, 정부 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등의 성과를 냈다. 한 국차박물관, 녹차생태공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등 굵직한 지역 관광개발 사업을 무리없이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승환 전 보성군수의 '귀환'도 관심사다. 지난 2006년 선거에서 정종해 군수에게 고배를 마셨던 그는 광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지역을 살펴왔다.

/오광록·김용백기자 kroh@kwangju.co.kr

■ 이슈&변수

일부 후보간 연대 여부 주목

보성-벌교 지역 다툼도 관심

보성 군수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 공천이다.

대부분 후보가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무소속이지만 범민주당 계열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치열한 1차 당내 경쟁을 펼쳐야 하는데, 당내 경선이 실질적인 본선 경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무소속 출마나 아예 군수 선거를 포기하고 도의원 등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또 일부 후보들이 고향이나 학연 등으로 엮여 있어 후보 간 연대 가능성이 크다. 같은 고향·학교 출신 간 연합을 통해 세를 불릴 수 있다는 점이 중요 변수 중 하나다. 고향 지역을 기반으로 뛰고 있는 후보들이 많아 당내 공천과 본선 과정에서 서로 힘을 보태주는 상황도 자주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몇몇 인사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분류돼 군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후보군은 없기 때문에 아예 민

주당 공천을 포기하고 안 신당으로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선거 쟁점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큰 틀이다.

인근의 지역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디고, 녹차를 제외하고는 내세울 수 있는 관광 상품도 없다는 점 등이 선거 과정에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뿌리 깊은 보성과 벌교의 지역 다툼도 이슈다.

과거 벌교읍과 다른 지역의 표심이 갈리는 등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가 많은 벌교읍의 표심을 누가 끌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안고 있는 벌교 유권자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공약 싸움도 예상된다.

/오광록·김용백기자 kroh@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꼼꼼하게 미려하게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동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루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섭취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4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